

북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준비 나서

지난 8일 전담 TF팀 구성·가동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운영

광주광역시 북구는 국민주권정부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42만여명의 북구 주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대비해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8일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중에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팀’에는 이번 사업의 총괄 부서인 민생경제과를 비롯한 9개 부서와 27개 동이 3개 팀 6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아 전반적인 상황 관리에 나선다.

북구는 신청이 시작되기 전, 관내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의 접수창구 구축을 마무리하고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추가 인력과 장비를 조사한 뒤 전담 인력을 한시 채용해 신청 첫날부터 접수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북구청 효죽공영주차장 2층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총괄 운영실’을 조성하고 14일부터 5명 내외의 인원이 이의 신청 처리,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각종 민원 대응에 나선다.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 개시 후 첫 주에는 부서별 2명 내외의 공직자와 자원봉사자를 각 동에 배치해 접수 업무를 지원한다.

오는 15일에는 소비쿠폰 지급 결정 사항에 이의 또는 문의가 있는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전 동의 동장과 행정서비스팀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 기간 중에는 전담 콜센터도 운영할 전망이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못해 신청 노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방문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도 이뤄진다. 동별 통장단의 인적 홍보와 구 SNS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북구는 본격적인 신청이 시작되면 소비쿠폰 지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유선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지급률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국민주권정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인 만큼 주민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구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구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다중이용시설 폭염 대응 캠페인
서구, 취약계층 대상 수칙 안내
열음물·쿨패치 등 홍보물품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난 11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농성역·상무역 등 지역 다중이용시설 일대에서 ‘폭염 대비 온열질환자 예방·대응 캠페인’을 실시했다.

13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장기화되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통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100여명과 함께 농성역에서 시작해 양동시장역, 돌고개역, 상무역 등 관내 지하철역을 순회하며 야외근로자는 물론 어린이, 만성질환자,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열음물, 쿨패치, 폭염 대응 수칙 안내문 등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김성배 부구청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된 만큼 미리 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폭염 예방 수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광산구, 하남다누리체육센터 개관
수영장·헬스장·다목적체육관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하남3지구에 위치한 하남다누리체육센터가 개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광산구는 지역 밀착형 체육 공간인 하남다누리체육센터의 개관식을 진행했다.

이날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관계 기관 등이 참여해 체육센터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하남다누리체육센터는 전체 면적 6047.27㎡이며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체육센터는 지난 4월 임시 개관해 그동안 시범 운영하다 이번에 정식 개관했다.

체육센터는 수영장·헬스장·다목적체육관 등 다양한 생활체육 기반 시설을 갖추고 나이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강화를 운영한다.

체육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월 1·3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은 휴관한다.

광산구는 하남다누리센터 개관식을 계기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생활체육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병규광산구청장은 “하남다누리체육센터는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육 프로그램 확대와 쾌적한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남구, 직급별 AI 활용 교육
31일까지 직급별 5차례 실시
생성형 AI 실무 활용 역량 강화

광주광역시 남구가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을 가속화하면서 스마트 공직사회 도래에 걸맞은 직원 업무 경쟁력까지 강화하고 있다

남구는 13일 공공행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성형 AI의 실무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7월 한달 동안 직급별로 지식재산 저작권 이해 및 AI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인공지능이 단순 챗봇을 넘어 증명서 발급 등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AI 국민비서 사업을 구상 중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AI 기반 민원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면서 주민과의 소통 방식까지 변화를 주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1일까지 직급별로 나눠 5차례에 걸쳐 펼쳐지며, 모바일 AI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4~6급 간부 공무원은 이 기간에 생성형 AI와 ChatGPT 활용, 개인정보 보호 이슈 및 주요 사고 사례 등을 학습하며, 7~9급 공무원은 AI 기술에 기반한 공문 및 민원 답변용 프롬프트 작성을 비롯해 보고서·기획안 작성, 지식재산 저작권 이해 등을 배울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차량 흐름 분석을 도입하거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접근법을 강화하면 정책 효과까지 예측하는 시대가 왔다”면서 “더 스마트한 공직사회로 전환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서구, 미래혁신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 개최

년촬영을 하고 있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지난 11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열린 ‘미래혁신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위촉장을 수여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

광산구, 전기차 충전 구역 안전시설 설치 추진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
연기감지기 최대 10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구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광산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광산구는 조례를 바탕으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및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호에 따라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및 수신기형

연기감지기 설치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충전 구역 1면당 감지기 1대와 인접한 일반 주차구역 양옆 각 1기를 포함해 화재 감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한다.

광산구는 현재 전기차 충전기 3931기가 구축됐으며, 공동주택시설에는 3168기가 지역 내 295개 아파트 단지 중 120여 개 단지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있다.

광산구는 향후 원룸 등 소규모 건물의 전기차 충전 구역까지 점차 지원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며, 신청을 원하

동구, 쪽방촌에 ‘착한 나눔 바우처’·‘기후대피소 쿠폰’ 전달

광주광역시 동구가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의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착한 나눔 바우처’와 ‘기후대피소 쿠폰’을 지급했다.

13일 동구에 따르면 쪽방촌 40세대에 1인당 8만원 상당의 식사 및 생필품 교환 가능한 바우처와 함께, 지정 목욕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후대피소 쿠폰’ 10매씩을 제공했다.

해당 바우처는 지역 내 16개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고, 기후대피소는 1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썬빛 상담소’가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 9월까지 운영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광주주거복지센터의 기부로 쿨매트, 냉각 선풍기 등 폭염 대응 키트도 함께 전달됐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